

News

기업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고객피해 최소화 노력"

뉴스1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기본 배상 비율을 50%로 책정, 투자 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 배상 결정

시장금리 상승에도 대출금리 영향 제한적

디지털타임스

한국은행은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 대출 차주의 대출금리와 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한국은행의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2월 26일까지 가계대출 평균 이자율 0.08%p, 기업대출 평균 이자율 0.09%p 상승

박성호 하나은행장 취임... 신한금융, 분기배당 근거 마련

한국경제

하나금융은 이날 주총을 열어 박성호 은행장 선임 등의 안건을 통과, 우리은행도 권광석 행장의 연임 안건 등을 의결. BNK금융의 안감찬 부행장, 최홍영 부행장을 새 행장으로 선임.
신한금융지주도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이 '반대'를 권고한 이사 선임안 등 모든 안건을 큰 논란 없이 통과. 정관 변경안을 의결해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화폐는 대세... '은행산업' 사라질수도

매일경제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와 한국지급결제학회는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화폐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없어도 금융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전망
계좌가 사라지고 휴대폰 전자지갑을 통해 화폐를 거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나 전자지갑, 디지털 자산 유통화 시장에 기회가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유통화 및 거래 시장 활성화 기대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 ... 연임 '빨간불'

파이낸셜뉴스

정 대표는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초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투자자 피해 구조 노력 등을 소명해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대상이었다. 옵티머스는 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기업 사모사채 등을 주로 담았다.

[금소법 시행]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강화... 소송 남발도 제약

머니투데이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는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불공정영업 책임 의무를 더 무겁게 지게 된다. 소비자의 재산상환이나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수익변동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6대 판매원칙 위반 시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하다.

'유사암 진단비' 한도 올리는 보험사... 과열되면 소비자 피해 우려

조선비즈

메리츠화재가 '유사암 진단비'를 한시적으로 4000만원까지 확대. 당장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과열 경쟁 우려가 불거졌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유사암 진단비 한도를 올리기 시작. 처음에는 2000만원으로 진단비 한도를 확대했다가, 메리츠화재는 회사들보다 먼저 진단비를 4000만원까지 확대

금융위, KB·메리츠·부국·CLSA증권 불법 공매도 혐의 조사 중

조선비즈

금융위원회가 KB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등 3개 국내 증권회사와 홍콩계 증권사인 CLSA를 불법 공매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곳의 증권회사는 시장조성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